

日 제품 불매 · 여행 거부 동참

전북체육회, 수출 규제에 인한 한일 갈등 심화에 따라
도 바이에슬론연맹, 전지훈련지로 러시아 등 전환 모색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의해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북 체육계도 '일본 제품 불매 및 여행 거부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형원 사무처장이 이날 열린 '제56회 전라북도 민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력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와 체육종목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체육인이기 전,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안사기, 일본 여행 안가기에 체육인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각 종목단체에서는 만약 전지훈련 등으로 일본이 계획 돼 있으면 취소하고 다른 곳을 알아봐달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종목에서는 운동기구와 장비 등의 용품을 일본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역시 교체·사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최 처장의 발언에 대해 회의에 참석

한 체육인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전북바이에슬론연맹도 고민에 들어갔다.
전북 바이에슬론 선수들은 약 2년전부터 일본 홋카이도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 오는 11월쯤에도 홋카이도로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선수과 지도자들은 보름 넘게 홋카이도에 머물며 훈련을 했지만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훈련지로 일본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바이에슬론연맹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올해 전지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이다"며 "훈련을 취소해야 될 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으로 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8일 전주의 한 웨딩홀에서 '전북 체육종목단체 실무자협의회 출범식 및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필승 다짐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 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내 체육인들 "단합된 힘으로 전북 체육 위상 높이자"

전북 체육종목단체 실무자협의회 출범
도내 체육인들이 '전북 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웨딩홀에서 '전북 체육종목단체 실무자협의회 출범식 및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필승 다짐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자협의회 출범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이뤄진 전북 체육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출범으로 도내 68개 종목단체는 전북도

와 도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전북 체육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실무자협의회 초대 회장은 전북요트협회 김총회 전무이사가 맡았다. 임기는 2년이다.
김총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갈 것"이라며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실무자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형원 도 체육회 사무처장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비롯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전북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체육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자협의회 출범식에 앞서 지난 5월 고창에서 열린 '제56회 전북도민체전 운영개선 평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내년 남원에서 열리는 제57회 전북도민체전을 그 어느 대회보다 도민 행복대회로 치르자고 입을 모았다.
/장은성 기자

'첫 출전' 아티스틱 수영, 결선 진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 팀 프리 콤비네이션 예선 11위

2019광주수영세계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팀 프리 콤비네이션에 처음 출전한 한국대표팀이 결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18일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아티스틱 경기장에서 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팀 프리 콤비네이션 예선이 펼쳐졌다.
이날 출전 16개팀 중 7번째로 연기를 펼친 한국팀(백서연·김지혜·김준희·김소진·구예모·이기빈·이재현·이유진·신정운·송민주)은 관중들의 큰 호응 속에서 준비한 연기·기술을 차분히 수행했다.
한국은 수행(Ex) 23.1점·예술 인상(AI) 30.8000점·난이도(D) 23.8점, 총점 77.7000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한국 대표팀은 팀 결선 1년여 만에 지난 4월 재팬오픈월드시리즈에 출전해 팀 프리 콤비네이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달 캐나다오픈에서는 은메달을 땀다.
기세를 몰아 대표팀은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예선 1위는 아티스틱 수영 강국 러시아가 차지했다. 러시아는 창의적인 연기와



18일 광주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스윔 프리 콤비네이션 경기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연기고 있다.

원벽한 기술 구사를 선보여 수행(Ex) 23.3점·예술 인상(AI) 39.0667점·난이도(D) 29.2점, 총점 96.5667점을 받았다.
러시아가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솔로·듀엣·혼성·팀 테크니컬과 솔로 프리에 이어 아티스틱 수영 종목에서만 6개의 금메달을 확보한다.
남은 듀엣·팀·혼성 프리 등 3개 종목도 모두 예선 1위로 결선에 진출해 있다.
아티스틱 수영 10개 종목 중 출전하지 않은 팀 하이라이트 종목을 제외하고 9개 종목을 석권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은 총점 96.0000점을 받아 예선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3위는 우크라이나(94.3333점), 4위는 일본(93.0000점)이 차지했다.
팀 프리 콤비네이션은 선수 10명이 출전해 4분 동안 솔로·듀엣·팀을 자유롭게 구성해 연기는 종목이다.
아티스틱 수영 팀 프리 콤비네이션 결선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경기를 끝으로 이번 대회 아티스틱 수영 종목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뉴시스

프로야구선수협 FA 80억 상한제 수용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자유계약선수(FA) 80억원 상한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상선수 제도 폐지, FA 기간 단축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선수협 김선용 사무총장은 18일 FA 선수 상한제도를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선수협은 FA 상한제를 반대했다. 선수들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선수들의 높은 몸값 만을 지적하는 것에 반발했다.
당시 선수협은 "FA 취득 기간 단축, 최저연봉 인상 등 선수협이 수년간 요청해 왔던 사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결국 선수협은 FA 상한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거꾸로 KBO와 구단들에게 불리한 조

항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우선적으로 FA 취득 단축, 보상선수 제도 폐지, 최저연봉 인상, 재취득 기간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만 4년 80억원의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제 시작 단계이며 KBO, 구단과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BO는 FA 상한제에 반대를 외쳤던 선수협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KBO 관계자는 "선수협의 공식 입장은 아직 듣지 못했다. 작년엔 FA 상한제를 제안하면서 FA 취득 기간 1년 축소, 최저연봉 단계적 조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FA 보상선수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은 할 수 없지만 8월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선수협과 잘 협의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www.firefly.or.kr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